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운영 실태 및 요구

권유진·임윤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Elective Course Status and Need Related to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Yoojin Kwon · Yunjin L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ICE

Abstract

High school credit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a student selects the desired content according to his/her subject and completes accumulated credits to reach graduation when a certain standard is reac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th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analyzing the status of high school elective subjects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reas, and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teachers and experts as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pproaches. A survey was conducted to all professors in th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r Technology Education, along with a national sample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of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 and responses of 282 teachers and 36 experts wer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general high school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elective courses in technical and home economics were very insufficient. Second, there was a large number of requests for the expansion of elective courses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mong the high school teachers. Third,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t was recognized that elective courses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in consideration of secondary school education, but in relation to their connections with majors in universities. Improving the structure of electives in this direction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allowing elective courses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o contribute to ensuring students' free choice.

Key words: 고교학점제(high school credit system), 기술·가정과(technology·home economics education),
선택과목(elective course)

[†] 교신저자: Yunjin Li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el: +82-43-931-0216, E-mail: techlim@kice.re.kr

본 논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운영 실태 및 재구조화 방안(2019)' 연구에서 일부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2019) 제 48조 ②항에는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개인적 필요와 적성, 능력에 따라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Kim, Kim, & Ham, 2017). 따라서 이는 대학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MOE(2020)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0년에 마이스터고(51개교)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고, 2022년에 특성화고에 도입되며 일반고에 부분 도입된다. 또한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이 예정되어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과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술·가정과과의 경우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교과에 미칠 영향과 대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한 필요 시수가 부족한 형편이었던 기술·가정은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 방향에 맞도록 학생 요구에 충족하는 다양한 과목들이 제시된다면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학생들이 오히려 입시에 유리한 과목들을 대거 선택하거나 ‘기술·가정’보다는 일반적으로 향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택함으로써 기술·가정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학

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선택과목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거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선행하여 이미 감소 기로에 있는 기술교사 혹은 가정교사들과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기술교육과 및 가정교육과 전문가들의 인식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과목이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예비교사 교육이 이를 뒷받침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일반 선택과목은 중학교와 연계하여 기술·가정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진로 선택과목의 경우는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가정과학, 창의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지식재산 일반으로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MOE, 2015), 대학전공계열에 맞는 실업과목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에 기술·가정, 진로 선택과목에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창의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 과학, 지식재산일반’을 포함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등학교 기술·가정과과의 선택 운영 현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일반 선택과목인 기술·가정과과를 편성하는 학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진로 선택과목의 경우 거의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2018). 이와 같은 교과 선택의 감소 현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한 대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선택과목 상의 쟁점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의 편성 및 운영 실태를 전국 단위 교사와 전문가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향후 이에 근거하여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일반 및 진로 선택을 위한 과목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한다면 교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첫째, 기술·가정과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현재 과목의 편

성 및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과목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과목의 적절성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운영 계획(안)’을 발표하였다(MOE, 2017).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수업 및 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의 구체적인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핵심적으로 정의한다면 ‘수업 단위 인정 체제’를 ‘학점 인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MOE, 2017). 학교 혁신 프로젝트로서 고교체제 개선,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선의 관련성에 대해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일반 및 진로 선택과목 구조가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교 단위 교육과정을 발굴 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매뉴얼(MOE·KICE, 2018)에 제시된 연구 내용별 수행 과제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매뉴얼(MOE·KICE, 2018)에

II. 고교학점제 관련 문헌 고찰

1. 고교학점제의 배경과 운영절차

교육부는 2017년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고교체제 개편	고교교육 혁신(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입 동시 실시(18.하)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 추진(18~20) ▶ 고교 체제 개편(18.하~) - 국가교육회의 논의 후 추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 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하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수업과 평가 혁신 ⇒ 학점제를 도입(22 예정)하여 선택형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마련(18.8.) ▶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문화 및 교육과정 운영 혁신 등 혁신교육 확산 ▶ 교원 자발성·전문성 신장 및 고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 구축 		

Source: MOE(2017, p. 3)

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innovation projects

Table 1. Operational manual of research schools for introduc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연구 내용	세부 수행 과제
수강 신청제 도입(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전체 대상) 진로·적성 검사 및 진로·학업 상담 • (1학년 전체 대상) 학생 개인의 진로별·적성별 필요 교과목 안내 및 3년 간 학업계획서 작성 지도 • 학업계획서에 근거하여 교과목 개설 가능 범위 설정 • 교과별 강의요목 작성, 학생 대상 설명회 후 수강 신청 실시 • 학교가 정한 일정 기준(예: 10-15명) 이상 수강 신청 시 학교 내 과목 개설
학생 맞춤형 학습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지원팀의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지도 • 과정 중심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 • 과목별 성취평가 E등급 학생 중 성취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별도 학업보충기회 마련 • 학교별 공간 관리 지원 및 생활지도 관리 개선 방안 수립·시행 • 교사별 업무 분장 등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형 학습 관리 지원을 위한 교원 업무분담 구조개선

Source: MOE·KICE(2018, pp. 15-16)

제시된 교육과정 운영 절차를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도적 쟁점 및 교원 관련 쟁점이 존재한다. 이 제도적 쟁점에는 졸업이수 단위의 조정, 선택과목 구조, 소인수 과목의 개설 및 평가, 능력 평가 방식 등이 있으며(Lee, 2018), 교원 관련 쟁점으로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강사 확보,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개편,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과목의 범위 및 시수 조정 등이 있다(Heo 외, 2018).

결국 수업 단위 인정에서 학점 단위 인정 체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변화시킴으로 인해 교사의 역할 변화 및 교사 수급문제와 맞물려 학교 관리자들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학생의 선택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사의 교권과의 균형점을 찾는 점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교육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군 등을 중심으로 공동교육과정 운

영 등 협력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입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선택과목에 따른 평가 체제 및 입시의 반영을 위한 기준 개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

2017년부터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온 ‘고교학점제’였으며, 이는 기술·가정과 선택과목과 그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 이후 기술·가정과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으며, 대표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Lim(2018) 연구는 2016~2018 고등학교 교원 현황 및 기술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계고의 96%정도에서 80%로 기술·가정 과목 편성 운영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농업생명과학, 경영일반, 해양과학 과목은 거의 편성



Source: MOE · KICE(2018, p. 35)

Figure 2. Student selection type curriculum organization and operation procedure

되고 있지 않았으며, 가정 과학 역시 점차 감소 추세라고 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유수강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통해 또는 희망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과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혹은 다른 교과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일반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기술·가정과를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결국 교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Park, Lim, Kwon과 Lee(2020)의 연구에서는 가정과와 기술과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정에 참여 정도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 편성 시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2%정도만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 변화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사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선택과목의 다양화로 인해 내용 심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비입시 과목으로 선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교학점제가 적용 적합성이 높은 과목으로는 기술·가정, 가정과학, 공학일반, 지식재산일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교사들과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교사는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술 및 가정교사를 대상으로 전체 모집단 1518개교 중 41%에 해당하는 620개교를 편의 표집하여 설문을 요청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전국 기술교육과, 가정교육과, 기술가정교육과 교수들로 대상자를 구성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에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중 설문 문항에 모두 응답한 교사 및 전문가는 각 282명과 36명이었다. 문항의 통계처리는 대부분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기술하였고, 가정과 및 가정 외 전공 교사 간 과목 적절성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 간 분석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교사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설문 내용은 선택과목 수요 조사 및 운영 실태,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에 대한 인식, 선택과목 구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내용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선택과목 적절성 및 선택과목 구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교사 및 전문가 설문 항목은 <Table 4>와 같다.

Table 2. Teacher survey respondents

		가정		가정 외*		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성별	남	1	0.6	80	67.8	81	28.7
	여	163	99.4	38	32.2	201	71.3
경력	5년 미만	27	16.5	5	4.2	32	11.3
	5년 이상~10년 미만	18	11.0	14	11.9	32	11.3
	10년 이상~15년 미만	23	14.0	19	16.1	42	14.9
	15년 이상~20년 미만	21	12.8	25	21.2	46	16.3
	20년 이상~25년 미만	17	10.4	16	13.6	33	11.7
	25년 이상	58	35.4	39	33.1	97	34.4
	15학급 이하	40	24.4	27	22.9	67	23.8
학급규모	16학급~24학급	36	22.0	30	25.4	66	23.4
	25학급 이상	88	53.7	61	51.7	149	52.8
	계	164	58.2	118	41.8	282	100.0

주. 가정 외* : 기술, 기술·가정, 공업 및 기타 전공

Table 3. Expert survey respondents

		가정		기술		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성별	남	1	4.8	15	100.0	16	44.4
	여	20	95.2	0	0.0	20	55.6
	계	21	58.3	15	41.7	36	100.0

Table 4. Survey items for teachers and experts

항목		문항
교사	선택과목의 수요 조사 포함여부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포함 여부 수요 조사 미포함 이유 수요 조사 포함이 미편성으로 이어진 이유
	선택과목의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의 편성 운영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가정 선택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술·가정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 요구에 대한 교사 인식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 구조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가정 선택 과목의 교과목 구조에 대한 인식 기술·가정 선택 과목의 적절성
전문가 (교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대한 인식 고교학점제 도입이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의 적절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 관련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에 대한 적절성

Table 5. Demand survey for technology·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

선택 과목명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기술·가정	220	78.0	56	19.9	6	2.1	282
농업생명과학	17	6.0	250	88.7	15	5.3	282
공학일반	70	24.8	199	70.6	13	4.6	282
가정과학	68	24.1	202	71.6	12	4.3	282
창의경영	39	13.8	228	80.9	15	5.3	282
해양 문화와 기술	14	5.0	253	89.7	15	5.3	282
지식재산일반	54	19.1	212	75.2	16	5.7	282

IV. 연구 결과

1.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수요조사 및 운영 실태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운영 실태는 크게 선택과목의 편성에 대한 요구와 교육과정 편성과정에서의 교사 참여 그리고 실제 과목의 운영 현황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선택 과목 수요 조사 여부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나타났듯이, 일반 선택과목인 기술·가정은 78.0%, 진로 선택과목에서는 공학일반(24.8%), 가정 과학(24.1%), 지식재산일반(19.1%), 창의경영(13.8%), 농업생명과학(6.0%), 해양 문화와 기술(5.0%)의 순으로 해당 비율만큼 수요 조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가정과 경우 일반선택 과목인 ‘기술·가정’을 제외하고, 6개의 ‘진로 선택과목’에 대해서

Table 6. Reasons for the electives not including in demand survey

미포함 이유	빈도(n)	비율(%)
현재 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에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226	39.0
해당 과목에 대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87	15.0
해당 과목을 담당할 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82	14.1
수요 조사 목록 작성과정에서 기술·가정과 교사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56	9.7
수요 조사에 포함해도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50	8.6
기타	79	13.6
합계	580	

주. 응답은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었음.

Table 7. Reasons for the electives included in demand survey, not organized

미 편성 이유	빈도(n)	비율(%)
교육과정 전체 시수 제한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176	33.5
학생의 수요가 적었다.	132	25.1
실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교사가 없었다.	85	16.2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탈락되었다.	59	11.2
기타	74	14.1
합계	526	

주. 응답은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었음.

는 학생의 선택과목 수요 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70~8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택과목의 수요 조사에서 기술·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단위 배당 기준에서 생활·교양 영역을 1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중 일반 선택과목인 기술·가정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택과목을 위한 학생 수요조사에 기술·가정 선택과목을 포함하는지 않는 이유와 수요 조사에는 포함하나 실제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각각 <Table 6>, <Table 7>과 같다. 먼저 <Table 6>에 따르면 이유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현행 교육과정에 맞춘 조사’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교학점제로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운영보다는 기존의 교육과정 편성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목 수요의 부족’이 21.6%, ‘과목을 맡을 교사 부족’이 20.3%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 수요조사 목록과정에서 기술·가정과 교사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기존의 경험 때문에 선택과목으로서의 선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수요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 나타났듯이,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수요 조사에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이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나 수능 과목 위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과목 요구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과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사 높은 수요가 예측되어도 담당할 교사가 없는 과목일 경우 수요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과목에 대한 홍보나 안내하는 절차 없이 그리고 모든 과목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된 수요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선택과목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며, 고교학점제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준비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적용하려

Table 8. Elective course operation statu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선택 과목명	운영함		운영하지 않음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기술·가정	259	91.8	23	8.2
농업생명과학	24	8.5	258	91.5
공학일반	62	22.0	220	78.0
가정 과학	60	21.3	222	78.7
창의경영	36	12.8	246	87.2
해양 문화와 기술	23	8.2	259	91.8
지식재산일반	43	15.2	239	84.8

주. 선택과목은 학교별로 상이하므로 수요 조사 포함 여부의 빈도는 중복 포함되었음.

고 시도하거나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때 현장 상황과 교사 최소 시수 등을 함께 고려하다보니 실제 학생들의 선택을 위한 과목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수요가 부족하였던 사례 이외에 교육과정 전체 시수 제한 등으로 선택과목이 추가적으로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 고교에 기술교사 혹은 가정교사가 1인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많은 과목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교육과정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는 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과정 시수, 교사 인력, 의사결정과 같은 학생 선택권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은 향후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환경 조성으로서 선결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듯이, 응답자가 소속된 학교 전체 중 92%정도에 해당하는 259개교에서 일반 선택 과목인 기술·가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선택과목 중에서는 공학일반과 가정 과학 과목을 각각 62개교(22%), 60개교(21.3%)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대부분의 기술·가정 과목은 1학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학일반과 가정 과학 과목은 3학년에 가장 많이 그리고 2학년에 일부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교별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과목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에서 일반 선택과목은 대부분 담당교사가 배치되었으나 농업생명과학, 해양문화와 기술 등의 과목은 일반

선택과목 내용와의 연계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교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청 혹은 지역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나 기술교사나 가정교사들의 교사교육을 통해 전문성 함양을 하는 방안이 있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과목 구조를 중등 기술가정 분야와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목을 제시하는 등의 실효성 높은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고등학교 교사들의 선택과목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교사의 인식은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의지와 관련되므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 관련하여 학생 요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Table 9>와 같다. <Table 9>에서 보듯이, 기술과 및 가정과 교사들이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이 미래사회 대비 역량을 기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기술·가정과 수업을 통해 희망전공분야의 경험 및 지식, 대학 진학 및 진로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선택과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현재 기술·가정과 과목은 희망 전공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술·가정과 과목에 대한 희망 전공을 선택하거나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술·가

Table 9. Teacher recognition of student needs in elective course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N=282)

문항	평균	표준편차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다.	2.87	0.82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을 통하여 대학(학과) 진학 및 진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3.00	0.75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을 통하여 희망전공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받고 있다.	3.10	0.75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은 현재의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71	0.93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이 도움이 된다.	3.39	0.74

주.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Table 10. Teacher recogni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elective courses (N=282)

선택과목	평균	표준편차	
일반선택	기술·가정	3.16	0.75
	농업생명과학	2.67	0.80
진로선택	공학일반	3.00	0.78
	가정 과학	2.98	0.80
	창의경영	2.84	0.77
	해양 문화와 기술	2.61	0.83
	지식재산일반	3.01	0.77

주.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정과 교사들은 기술·가정과 과목이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선택과목의 적절성과 선택과목 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Table 10>, <Table 11>과 같다. <Table 10>, <Table 11>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현재 과목 중 기술·가정, 공학일반,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적절성이 3점을 약간 넘긴 정도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전공에 따라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비교한 결과 ‘공학 일반’, ‘창의 경영’, ‘지식 재산 일반’인 3과목에서 적절성에 대한 가정과 교사와 가정 외 전공교사(기술 및 기타 과목 교사)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가정’과 ‘가정 과학’ 과목은 가정교사와 가정 외 전공교사 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는 반면, 공학일반, 창의 경영, 지식재산일반 과목은 가정교사와 가정 외 전공교사 간 적절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의 전공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정’이나 ‘가정 과학’ 선택과목은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가정 외 전공교사들은 가정과 교사들보다 ‘공학 일반’, ‘창의 경영’, ‘지식 재산 일반’ 과목을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가정과 교사들이 가정 외 전공 교사들보다 공학 일반, 창의 경영, 지식 재산 일반 과목이 기술·가정과 내용의 심화과목으로서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응답했을 수 있으나 가정 외 전공 교사들은 공학 일반은 물론 창의 경영이나 지식 재산 일반 과목 역시 기술·가정과 내용의 심화과목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술·가정과 과목 구조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Table 12>와 같다.

<Table 12>에서 보듯이, 교육과정 상 과목 구조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교과 특성 살리거나 중학교 내용과의 차별성, 진로선택과목의 기술·가정과 연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모두 3점 이하로 응답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

1) ‘선택과목의 구조’란 일반 선택과목은 기술·가정, 진로 선택과목은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가정 과학, 창의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지식재산일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Table 11. Differences in teacher percep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electives by majors

		전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일반선택	기술·가정	가정	164	3.20	0.75	1.09
		가정 외*	118	3.10	0.76	
진로선택	농업생명과학	가정	164	2.65	0.76	-0.68
		가정 외*	118	2.71	0.86	
	공학일반	가정	164	2.84	0.74	-4.24***
		가정 외*	118	3.23	0.78	
	가정 과학	가정	164	3.04	0.77	1.58
		가정 외*	118	2.89	0.85	
	창의경영	가정	164	2.76	0.81	-2.12*
		가정 외*	118	2.95	0.71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	164	2.57	0.80	-1.02
		가정 외*	118	2.67	0.87	
	지식재산일반	가정	164	2.86	0.77	-3.87***
		가정 외*	118	3.21	0.74	

*p<.05 ***p<.001

주. 가정 외* : 기술, 기술·가정, 공업 및 기타 전공

Table 12. Teacher recognition of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course structure

(N=282)

문항	평균	표준편차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비추어 현재의 교과 영역(생활·교양)은 기술·가정과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76	0.79
고등학교의 일반선택과목(기술·가정)은 중학교의 기술·가정 과목과 내용과 수준면에서 차별화된다.	2.87	0.82
진로선택과목은 기술 및 가정 내용과의 연계가 잘 되어있다.	2.71	0.77
진로선택과목들은 일반선택과목(기술·가정)의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차별화된다.	2.83	0.77
현재의 표시과목으로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을 지도하는 데 문제가 없다.	2.66	0.8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과목 구조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2.58	0.83

주.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인 것으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즉, 현재 과목이나 과목 구조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고, 현재의 표시과목으로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을 지도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진로선택과목들이 일반선택과목과 내용과 수준에서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내용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의 ‘생활·교양’ 영역이 기술·가정과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현재의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의 구조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

로 선택 과목의 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으로서 교사들이 제안한 과목들은 <Table 13>과 같다.

<Table 13>에서 보듯이, 진로 선택과목에 대하여 교사들은 교과와 세부 영역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흥미로워 하고 전문영역으로서 심화된 주제나 내용을 다루는 과목을 제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과목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성화고와의 과목 교류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입시 교육 현실을

Table 13. Teachers' suggestion for elective course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영역	세부 제안 과목명
기술 영역	공학일반, 지식재산일반, 기계, 자동차, 건축, 로봇, 전기, 회로, 창의설계, 목공, 건설, 역학, 모델링, 통신, 프로그래밍, 컴퓨팅, 수송, 메이커, 특허, 발명 등
가정 영역	가정 과학, 식품, 영양, 요리, 의류, 주거, 인간발달, 부모교육, 유아교육, 한복, 마케팅, 가족학, 바리스타, 가족관계, 소비자, 아동발달, 패션, 제과제빵 등

Table 14. Expert recognition of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N=36)

문항	평균	표준편차
고교학점제도는 학생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2.78	0.76
고교학점제도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	2.75	0.77
고교학점제도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부합한다.	2.94	0.75
고교학점제도는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69	0.79
고교학점제도는 공교육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할 것이다.	2.69	0.71
고교학점제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2.92	0.69

Table 15. Expert recogni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elective courses (N=36)

선택과목	평균	표준편차
일반선택		
기술·가정	2.92	0.84
농업생명과학	2.44	0.73
진로선택		
공학일반	2.72	0.74
가정 과학	2.75	0.81
창의경영	2.17	0.88
해양 문화와 기술	2.17	0.77
지식재산일반	2.75	0.87

고려하면서 학생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으려면 입시 과목과 입시 외 자유 선택과목에서의 최소 이수할 시수를 설정하는 것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교사의 전문성이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술·가정과 관련 선택과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과목에 대한 교사 연수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 양성기관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사 양성기관 전문가들의 고교학점제 및 선택과목에 대한 인식

기술 및 가정교사 양성기관의 전문가들이 고교학점제의 취지,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의 적절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4>, <Table 15>와 같다.

교사 양성기관의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고교학점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잠재력, 역량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선택과목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및 가정교사 양성

기관의 전문가들이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인해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교사 양성기관의 전문가들은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술 영역 혹은 가정 영역의 다양한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대학 전공과 관련성이 깊은 기술 영역과 가정 영역의 세부적인 과목 요구 증가로 인한 분리 요구 역시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선택과목의 개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확대 요구라는 공급자 입장보다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근거한 진로 탐색의 기회 확대라는 수요자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가정과 관련 다양한 과목 요구가 증가할 것이나 이것이 수업 시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교과 인식 개선 등의 확대로 인식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의견으로서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한 동기 부여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담당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의 구조 및 내용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후속 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으로 전문가들이 제

안한 과목을 제시하면 <Table 17>과 같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자유의견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내에서 기술, 가정과 관련과목 이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기술·가정과 선택했을 때 관련 전공 입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교육과정의 개선 시 초·중·고 연계 등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담당 과목의 전문성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실제 학교 현장은 다시 입시 위주로 과목 편성이나 선택권이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에 전국 단위 고등학교 가정과 및 기술과 교사들과 전국 단위 가정교육과, 기술교육과 교수인 전문

Table 16. Expert recognition on the impact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N=36)

문항	평균	표준편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향후 기술 또는 가정 영역의 다양한 선택 과목의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3.08	0.65
선택과목 개설에 따라 기술 및 가정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할 것이다.	2.67	0.76
선택과목 지도를 위한 기술 및 가정교사의 티오(T.O)가 증가할 것이다.	2.64	0.68
고등학교 2, 3학년에도 기술 및 가정 영역에 대한 과목 개설이 확대될 것이다.	2.78	0.80
기술 영역과 가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 요구가 증가하여 관련 연수가 증가할 것이다.	2.94	0.86
기술 영역 및 가정 영역에 대한 교과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	2.97	0.84
고등학교 영역에서 기술 영역과 가정 영역의 분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3.25	0.65

Table 17. Professors' suggestion for elective course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영역	세부 제안 과목명
기술 영역	공학기술, 공학설계, 공학기초, 4차 산업혁명, 제조, 수송, 에너지, 건설, 발명과 특허, 공학진로 체험, 미래기술 등
가정 영역	인간과 생활, 인간발달, 소비자학, 소비자화 트렌드, 의류학, 식품과 영양, 가족학, 패션디자인, 실내디자인, 생활과 안전과학, 건강과 위생 등

가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후 진량 및 선택과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편성 및 운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편성과 운영에서 일반 선택과목인 기술·가정 과목만 운영되고, 나머지 진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이 미래사회 대비 역량을 기르고 학생의 진로희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로 선택과목이 편성·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셋째,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은 물론 대학의 전공과의 연계성을 모두 고려하여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을 구성하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기술 및 가정교사 양성기관의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기술·가정의 구조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혁신의 흐름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학교 현장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협력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데 있다. 또한 제도적 장애뿐만 아니라 교사 수급 등 관련 장애들을 일방적으로 회생시키는 방안이 아닌 상생을 위한 생산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가정과 교과의 특성상 융합 및 통합적 지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문제해결역량을 증시하는 교과이다.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공과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진학 전에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관심에 근거하는 흥미와 몰입을 경험하기에 적절한 교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시수감축 등으로 교과 특성 살리고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는 현 시점에서 첫째, 학습 수요자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 및 선택과목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 및 전문가들의 인식 제고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선택과목 내용 개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내용이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참신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기술·가정과 과목들의 선택 확대를 위한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 및 담당 교사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학술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제한한 선택과목을 볼 때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가정영역은 식품 영양, 인간발달, 부모교육, 패션, 생활과 건강, 생활 안전 등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목들을 제안하였으며 기술영역의 경우 로봇이나 설계, 메이커, 특허 등 미래 기술관련 과목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교사들은 학문적 구분보다는 좀 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과목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과목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개발하고 과목 구분을 세분화하여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왜 선택과목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교사와 전문가들이 상호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인 공감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인식 및 실태조사에 제한되어 있지만 향후에 실제 고교학점제 대안으로서 학생들의 과목 선호도 및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설정 방향 및 설정 근거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2019).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48(2), § 16672.
- Heo, J., Lee, S. Y., Lee, D. Y., Shin, C. G., Choi, S. J., Park, S. C., & Lee, Y. S. (2018). *Issues and challenges related to teachers and faciliti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2018 The First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Forum. KICE · KEDI · KRIVET · MOE.

- Kim, J. M., Kim, S. Y., & Ham, Y. K. (2017). *Curriculum and student evaluation restructuring plan for apply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서교연 2017-91).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 Lee, K. W. (2018). *Future direction and tasks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centered on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8 The First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Forum. KICE · KEDI · KRIVET · MOE.
- Lim, Y. J. (2018). Case study for organization and operation expansion in general high school technology cours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43(2), 97-113.
- Ministry of Education (2015). *A practical art(technology & home economics)/information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15-74 [별책 10]. Retrieved from <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Dire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operation plan of research school*].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593&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
- Ministry of Education (2020).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first start from Meister School*. Press Release. (2020.2.28.)
- Ministry of Education(MOE)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8). *Operational manual in research school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ORM 2018-20). Chung-Buk: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Park, M. J., Lim, Y., Kwon, Y., & Lee, K. (2020).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participation in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1), 15-34.

<국문요약>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과목에 따라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누적된 학점을 완료하여 특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가까워짐에 따라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실태와 교사 및 전문가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기술·가정과에서 취할 수 있는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전국 표집에 근거한 기술·가정과 교사와 전국 가정교육과 및 기술교육과의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하여 각 교사 282명, 전문가 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편성 및 운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셋째,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은 물론 대학의 전공과의 연계성을 모두 고려하여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선택과목 개선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술·가정과 교육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자: 2020년 6월 8일, 논문심사일자: 2020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6월 28일